

공동체 소식



부활 제6주일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를 저희 죄 때문에 죽음에 넘기시고,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진리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한봉경 베드로, 한순례 루시아 가정
- 한중문 요셉, 한정숙 마리아 가정

6월 공동체 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네스 가정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Fr. Tony 서품 60주년 기념미사

- 일시 : 6/1(일) 오후 1시
- 장소 : 103가 Holy Spirit 본당

저희 한인 공동체의 시작부터 함께 해 주신 토니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역 회의

- 일시 : 5/25(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지난 5/20(화), 캔사스대교구에서 재무감사를 나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평협과 특히 재무담당(차호섭 요셉)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5/25), 재무감사에 따른 임시 평협이 회관에서 있습니다.
- 저희 공동체에 병원 통역 서비스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조지연 마리아, ☎ 913-948-2925)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31	512	171/174	245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차서은 (세라피나)	차호섭 (요 셉)
	고평원 (프란치스코)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김준영 (요 셉)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서은 (세라피나)	차호섭 (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신현보 (요 한)	임지현 (에 스텔)
차주	최은미 (아 네 스)	감영진 (라 파 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김정돌, 윤유나, 지은경, 김재은
차주	손정화, 양정희, 유경애, 한춘희, 황의정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 셉)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5/18	93명	524불	524불
차호섭, 이현주, 배갑원, 김화년(총 4세대)			

부활 제6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5월 2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역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진리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7)

주님께서서는 모든 믿는이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현존으로 이끄시어 나날의 삶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8,5-8.14-17 <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



◎ 온 땅 은 춤 추 며 하 느 님 을 기 려 라

○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님을 기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빛나는 찬미를 주님께 드려라. 너희는 주님께 아뢰어라. 당신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고. ◎

○ 온 땅이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너희는 와서 하느님의 일들을 보라. 인간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

○ 바다를 말리시어 물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은 걸어서 강물을 건넜으니.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 안에서 기쁘도다. 그분께서는 능으로써 영원히 통치하시도다. ◎

○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주님께서 내게 하신 큰 일들을 들려 주리라.

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 찬미를 받으옵소서. ◎

제 2 독 서 : 1베도 3,15-18<또는 4,13-16> <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 14,15-21<또는 17,1-11> <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

쉐 마

사랑은 행동이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본당은 5월에 ‘성모의 밤’을 지냅니다.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밤에 성모님의 순명과 희생을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신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성모님에게 꽃다발과 노래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봉헌합니다.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100여 명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이 맡긴 아이들, 결손 가족이 맡긴 아이들이었습니다.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아이들이 약하고, 자주 아픈 것을 봅니다.” 시설과 환경 그리고 음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육체적으로 허약해진다는 수녀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들은 하느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안수를 통해 사랑의 성령, 위로의 성령, 뜨거움의 성령이 신자들에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을 두려움과 나약함에서 자유롭게 해준 것도 바로 성령의 기운이었습니다. 필리포스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앞둔 교우 분을 위해 안수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자매님은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맡기신다며 웃는 얼굴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신다면서 나 이도 많으니 수술도 하지 않고 암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삶

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먼 길을 가실 때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찬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빨래도 다 해 놓으시고, 찬장에 용돈도 넣어 두시고, 밥도 넉넉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작은집에 연락하라고 하시는 먼 길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골을 다녀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자, 위로자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중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또 어디 있으랴.’ 길가에 피어나는 작은 꽃들도 다 저렇게 흔들리며, 비에 젖는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 갈등의 바람에, 유혹의 바람에, 욕심의 바람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비가 내리고, 좌절과 고통의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충실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이시여! 나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저희 몸에 당신의 불꽃을 당기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3장 순종하면 살리라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신명 30,15-16).

< 주석 >

생명과 행복: 생명과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는데 있다. 그렇게 하면 번성할 것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다.

죽음과 불행: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떠남 자체가 죽음이요 불행이다.

계명: 이는 하느님이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이다.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살인해서는 안 된다……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탈출 20,3-17).

복: 복은 하느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신명 28,1-6참조).

< 설명 >

옛말에 “순천자(順天者)는 살(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공자)고 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하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은 참된 행복의 길이다. 십계명은 자유와 생명 그리고 희망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소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곧 그 계명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어긋나는 것을 금하고, 그 사랑을 위한 기본적인 행실을 명하고 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길을 나타내 보이고, 인간을 악에서 보호하려고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하느님께서 주신 빛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62항).

< 교회 가르침 >

▶ 믿음의 순종이란(‘순종하다’라는 라틴 말 oboedire는 ob[에게]와 audire[듣다]의 합성어이다.)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를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셨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항).

▶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891항).

< 어록 >

▶ 순명이 없는 곳에는 덕성도 없습니다. 덕성이 없는 곳에는 선행도 없습니다. 선행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느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천국도 없습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제가 거룩한 순명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엿더라면 저는 벌써 우리 포교지인 조선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순교하여) 저 세상에서 우리 신부님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저의 장상이 명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최양업 신부, 여섯 번째 편지, 1849년 5월 12일).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